



- 기간 : 2006. 8. 3 ~ 8. 7(5일간)
- 장소 : COEX 태평양홀 제4전시실
- 주최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주관 : (사)한국우취연합회
(재)한국우편사업지원단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어린이동아일보, 스포츠조선일보, 소년한국일보



국내우표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200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코엑스 태평양홀 제4전시실에서 '2006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표문화 대중화와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954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49회를 맞는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내 최고의 우표전시회로 그동안 특별관 전시와 수상작들을 전시해 많은 우취인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전시회에 모두 271작품이 출품되

었고, 그 수는 지난해에 비해 34 작품이 늘어났으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우취부문에서 많은 작품이 출시됐다"고 말했다.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우표

2006 대한민국우표전시회는 크게 우체국의 변천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정역사관'과 독도를 테마로 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관'으로 구성됐다.

한국 우정의 발자취



1. 독특한 근대 우표를 2~3.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200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열렸다.
4. '우표와 화폐관'에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우표와 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전시했다.
5. '우정 역사관'은 국내 우정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꾸며졌으며, 올해는 귀중한 고문서들이 다수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6. 한 쪽 벽에 국내 우정 발자취를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정역사관에는 우체통의 변화, 우체부 복장의 변화를 비롯해 국제대회 수상의 영광 등의 우정사료들이 전시됐다. 또한 구한국시대(1888~1910)의 중요 고문서가 소개됐다. 우정의 선구자로 알려진 홍영식(洪英植) 선생이 우편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문서, 순종 임금의 내린 홍영식 선생의 복권고지 등의 문서자료와, 우정총국 개설 고종황제 칙령, 1903년 10월에 발행된 고종황제 탄신 50주년 기념엽서 등 20여 점의 자료들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별관은 독도를 주제로 해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독도에 대한 고지도들을 소개하고, 독도에 얽힌 이야기들을 VTR 등을 통해서 상영했다. 특히 독도박물관과 협의해 우리나라 지도에 최초로 독도를 표기한 팔도총도(八道總圖)의 '동랍도'와 일본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현한 최초의 지도인 '수로지'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국내성을 복원한 복원도와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기마행렬 등도 함께 전시됐다.

최우수상, 전통우취 '대조선과 대한제국'

대한민국우표전시회는 매년 우표수집과 관련된 우편공모전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전통우취부문에서 '대조선과 대한제국'을 출품한 우표사랑회의 김요치(65세, 세무사)씨가 수상했다.

'대조선과 대한제국' 작품은 1884년 우리나라 최초로 우정총국이 설치되고, 1909년 일본의 강제 침탈로 구한국 우표사용이 폐지될 때까지 국내에서 통용된 각종 우표와 우편에 사용된 실제 봉투를 활용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작품의 특징은 구한국우표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첩쇄와 가쇄 방법의 다양한 형태를 규명했다. 또한, 우표가 우편에 사용된 봉투로 당시 우편제도와 우편의 송달 경로, 채송시간을 조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요한 우취자료가 많아 작품의 평가액은 무려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국무총리상은 테마틱우취부문에서 '항해세기'를 출품한 한국테마클럽의 김희성씨와 청소



1. 전시회 주변, 우취관련업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표나 화폐를 판매하고 있다.
2. 우표 발행 시기를 놓쳐 구입하지 못한 때 지난 우표들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이뤘다.
3. 아이들을 위한 우표의 기초지식에 대한 강의도 열렸다.
4. 취미특별주간으로 새롭게 발행된 하트모양 우표



년우취부문에서 '요관인쇄 보통우표'를 출품한 창원우취회의 정영용씨가 각각 수상했다. '항해세기'는 14년간 유명한 항해가들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범선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했고, '요관인쇄 보통우표'는 요관우표의 특징을 위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천공분류와 인쇄 자리표, 망점, 명판의 초기와 후기 구분 등 어려움이 많았던 작품으로 찬사를 받았다.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져

이밖에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호 교환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모습을 테마로 한 '공동우표관'도 마련됐다. 이곳에는 1999년 독일과 과테말라 250주년 기념우표, 2002년 중국과 한중 국민교류의 해, 2002년베트남과 수교 10주년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표들이 전시됐다. 이밖에 우표문화 행사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축제 한마당인 '우취강좌'가 열렸고, 각종 우표사이트에서 우표 이미지를 다운받아 우표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사이버우표만들기강좌'도 함께 열렸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